

# 사설

## 한일불교대회의 과제

한일 불교 지도자들이 양국을 상호 방문하며 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해온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마침 올해는 한국이 주최가 되어 대회를 여는 관계로 양국의 불교지도자들은 5월말 서울에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가질 것 이란 소식이다. 양국불교의 지도자들은 이 모임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전망할 것으로 전해졌다.

돌이켜 보면 한일불교교류대회는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만큼 이에 걸맞은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지난 79년 일본대회 이래 해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오가며 계속돼온 한일교류대회의 최대 성과는 무어니 해도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 일 것이다. 양국의 불교지도자들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상대방 국가의 불교문화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몸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실상을 바로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로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자국불교 발전의 거울로 삼은 점은 이 대회가 거둔 보이지 않는 성과중의 하나다. 이밖에 대승불교를 신봉한다는 공통점을 매개로 동북아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오늘날 불교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 점도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한일불교교류대회가 거둔 또 하나의 성과는 95년부터 중국을 참여시켜 동북아 대승불교 3개국이 황금의 삼각벨트를 형성한 것이다. 94년에 제 1회 95년 중국대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제 한중일 3국불교는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황금연대를 재현할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한일양국 불교계가 교류증진을 통한 우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평가와는 달

리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20년간의 교류내용이 '공식적인 관광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문화교류라는 명목으로 대회를 개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화교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대회 때마다 종교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성대한 만찬이나 허례에 불과한 '말씀의 잔치'만 계속된 점도 이 대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류대회의 성과를 높이려면 이제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교류방안이 연구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상호학문을 할 때 전통적 불교의식이나 예술을 상대방 불교계에 소개한다든가, 유학생 파견이나 수행승들의 현지체험수행, 불교문화재의 교류전시 같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혜택이 양국의 불교도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관광교류'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95년부터 시작된 비슷한 성격의 한중일 3국불교대회와 어떻게 성격을 차별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교류대회는 성격이 겹칠뿐더러 낭비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일불교대회를 3국불교대회에 흡수 하든지 아니면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대회가 되도록 하든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2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이런 지면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이 대회가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이 대회를 지원해온 양국 불교도들의 한결같은 기대다.

## 제주불교사회문화원 시민포럼-문화특강 개설

# 제주 비전찾기 나섰다

### 29일 미래사회학개소

제주불교계가 21세기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사회문화 비전을 제시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시민포럼과 특강 등 열린강좌를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 종합적인 문화의식 향상, 건전한 인재양성, 지역발전을 위해 창립된 제주불교사회문화원(회장 중원·원장 시몽)은 14일 제주일보 4층 대강당에서 지역 주요인사와 시민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뉴 밀레니엄과 제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새로운 제주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원장 시몽스님(법화사 주지)은 "불타의 지비정신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뜻으로 제주도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에 대한 학술연구 발전 시민포럼 및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책을 수립한 뒤 사회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함께 열거하는 제주 문화선언을 위한 제주불교사회문화원 부설 미래사회연구소(소장 김승석변호사) 개소식 및 기념 시민포럼이 29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11층 대강당에서 '시장 경제와 미래명명의 전망'을 주제로 정운영씨(서울대 강사)를

초청하여 열릴 예정이다.

미래사회연구소는 19명의 지역학자들이 연구진으로 포진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 연구 △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자료 및 정보은행설치 △사회비평리현상과 치유책 실천 △신선명 창조 △학술세미나 및 연구총서 발간 등의 연구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25일에는 '관광개발과 환경문제', 7월30일은 '21세기 지역발전과 지역전략', 8월 27일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9월 10일 '제주사회의 새로운발전 패러다임' 등 9월까지 매일 1회 시민포럼을 개최한다.

또 인간의 생로병사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등 가족중심의 사회적인 제관계를 조명하는 '가족-생로병사' 주제의 문화특강이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7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제주불교사회문화원에서 열린다. (064)758-2118

### 문화특강 일정

주제	일시	장소	강사
가족의 기원과 변천	6월4일 오후7시	불교문화원 강당	유인철(제주대학교수)
결혼과 이혼의 사회학	6월11일	"	김찬호(연세대강사)
사람은 늙지 않는다	6월18일	"	박재용(내과전문의)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죽음	7월2일	"	임정순(목부원)
현대인과 스트레스	7월9일	"	박재수(제주대학교수)
병든사회 병들어가는 자녀	7월16일	"	정민(한림대학교수)
관혼상제와 영도제도	7월23일	"	시몽스님(법화사주지)

## "두달안에 정상화 방안 찾겠다"

### 허문도 불교TV 사장 20일 기자회견

퇴임설 파문이 일었던 허문도 불교TV사장이 20일 마포 '에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날 허사장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날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뽑아준 만큼 회사 정상

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영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허사장은 "업무 파악이 안된 상태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경영 대안을 밝힐 수 없다"며 "2개월 정도면 경영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허사장은 또 불교 및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사장 선임 반발 성명서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심판과 참회가 다 끝난 옛날 얘기"라며 "지금의 과거에 연연하기 보다는 불교TV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 조계종 총회의원 보선 20명 후보 27일 선거

공석중인 7개 교구 및 직능 2개 분야 총회의원 보선선거에 20명이 입후보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명단을 발표했다. 보선선거는 27일 실시된다.

정성운 기자

### 금란가사 착용금지 조계종 계단위 결의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청하)는 6일 회의를 열어 울장에 근거한 전통적인 색깔의 가사를 착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의 금란가사 착용이 금지된다. 계단위원회는 또 행정교육원(17기)과 구족계 계단(20회)은 현행의 기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 초파일 남북해외불교도 공동발원문 "화합과 공생으로 민족통일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삼계의 스승이자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봉축하며 삼가 부처님 전에 발원하옵나니.

지금 남에서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에서는 지난 몇년간 큰 재해로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은 분단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민족의 중흥과 번영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생과 화합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내외가 따로 없이 서로 찾고, 부름과, 한마음으로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또한 지혜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이 분

단의 무명을 걷고 광명을 찾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일심으로 통일의 그날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반만년의 역사 속에 한핏줄을 이어오며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가 지난 50여 년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명의 역사를 깨고 광명의 역사가 이 땅을 비추는 화합과 공생의 첫 새벽이 될 것입니다.

만종생과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부처님께서 하신 마음으로 통일을 바라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도록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피주시고 원만구족의 가시력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이희호여사와 삼소회... 대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18일 청와대로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등 여성 성직자들로 구성된 삼소회 대표 15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여사는 "삼소회가 종교간 교리나 신념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 합창제와 북한어린이돕기 합창제 그리고 연등축제 참가 등 종교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종교화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사진기자단

## 국회 종교의원모임 결성 33명 참여...공동대표의장에 김영진 의원

'평화를 위한 국회 종교의원 모임'이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총회에는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 지도자와 박준규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현재 33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의원 모임은 15일 발기인대회를 열어 공동의장에서 석재(국민회의, 국회정각회장) 김영진(국민회의, 국가조찬기도 회장) 김경수(한나라, 원불교) 김현욱(자민련, 천주교) 의원을 공동대표의장에 김영진의 의원을 선임했다. 감사는 황우려, 사무총장은 김성곤의원이 맡는다. 발기인대회에서는 또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행사 △문화 및 자선사업 △기도모임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의 회칙(안)을 마련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20주년 기념

737-8881

젊은포교 나섰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 부처님 마음처럼 ...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불교조계종 제 2교구 본사</p> <h2 style="text-align: center;">용 주 사</h2> <hr/>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김 정 락</p> <p style="text-align: center;">총무국장 양 심 경</p> <p style="text-align: center;">교무국장 윤 성 무</p> <p style="text-align: center;">재무국장 김 성 직</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국장 김 성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전화 : 0331)234-0040</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불교조계종 제 3교구 본사</p> <h2 style="text-align: center;">철약산신흥사</h2> <hr/> <p style="text-align: center;">회 주 무 산 오 현</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도 후</p> <p style="text-align: center;">대 중 일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강원도 속초시 철약동 170번지 전화 : 0392)636-7393 FAX : 0392)636-7556</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 본사</p> <h2 style="text-align: center;">오대산 월정사</h2> <hr/>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비 룡</p> <p style="text-align: center;">회 주 인 허</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현 해</p> <p style="text-align: center;">대 중 일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전화 : 0374)332-6661~5 FAX : 0374)332-6915</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불교조계종 제 5교구 본사</p> <h2 style="text-align: center;">속리산 법주사</h2> <hr/>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혜 광</p> <p style="text-align: center;">기 획 중 진</p> <p style="text-align: center;">재 무 현 장</p> <p style="text-align: center;">교 무 현 우</p> <p style="text-align: center;">포 교 황 원</p> <p style="text-align: center;">호 법 각 밀</p> <p style="text-align: center;">▶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전화 : 0433)543-3615 FAX : 0433)543-3620</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본사</p> <h2 style="text-align: center;">팔공산 동화사</h2> <hr/> <p style="text-align: center;">조 실 진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지 성 덕</p> <p style="text-align: center;">선 원 장 지 해</p> <p style="text-align: center;">총무국장 지 유 광</p>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국장 장 현 현</p> <p style="text-align: center;">교무국장 각 정 성</p> <p style="text-align: center;">재무국장 혜 우 우</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국장 지 일 도</p> <p style="text-align: center;">호법국장 지</p> <p style="text-align: center;">포교국장 지</p> <p style="text-align: center;">외 대중일동</p> <p style="text-align: center;">▶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 053)985-4404 053)982-0101~2</p>
---	--	---	--	---